

전남광주 명인·명장·기업인, 지식·혁신축제서 10개 부문 석권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신지식창조대상 등 대거 수상 영예
김항미·박민정·성동욱·신지환씨 ‘세계 신지식인’ 인증
한문철 회장 “지역 명인·명장 지위 향상·권익 보호에 앞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업인과 품질명장, 전통식품 전승자 등 혁신가들이 전국 단위의 대표적 지식·혁신 행사로 꼽히는 ‘2026 세계 신지식인 인증식 및 제38회 세계신지식인 포럼’에서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의 우수한 지식 역량을 전국 무대에 각인시켰다.

세계신지식인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 신지식인 인증식 및 제38회 세계신지식인 포럼’이 최근 서울 서울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인증식에서는 자신만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김항미 ㈜에코퓨어셀 대표와 박민정 농업회사법인 ㈜담백원 대표, 성동욱 광주상사 대표이사, 신지환 ㈜무돌자락 대표 등 4명이 ‘세계 신지식인’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또한 총 26분야에 상상이 진행된 유공자 표창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인, 명장, 기업인들이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과 신지식대상 등

10개 주요 부문을 석권하며 지역의 뛰어난 산업·문화 전승 역량을 입증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기아㈜ 유전호 대한민국 품질명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표창) △ ㈜에스엠소프트 대표 (국회기후환경위원장 표창) △ 박민정 농업회사법인 ㈜담백원 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 김항미 ㈜에코퓨어셀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 장연수 다도참주가 대표와 채상현 안북자학과 부장·대한민국 식품명인 전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 △ 김경자 담양 마운다미원 다레원 원장 (국회교육위원장 표창) 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신지식 창조대상에 이은경 남도전통음식연구소 대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 선생 전승교육사)가 수상했으며, 신지식혁신대상에 이은옥 색동두부 대표, 신지식경영대상에 남근희 남국가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신지식인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 신지식인 인증식 및 제38회 세계신지식인 포럼’이 최근 서울 서울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문철 세계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장은 “이번 전국 행사에서 거둔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명인, 명장, 기업가들이 쏟은 땀방울과 혁신 노력의 결실”이라며 “세계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과 함께 명인·명장들의 지위 향상, 권익 보호, 지식 가능한 지식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정신으로는 혁신, 실전, 지식 공유, 사회적 책임이 제시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초등학교 6학년 오민서양 따뜻한 나눔 ‘눈길’

저금통에 모은 23만2300원
위기아동 지원 위해 기부

초등학교 6학년 오민서양이 자신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위기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초록우산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양이 올해 초부터 저금통에 모은 23만2300원을 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모의 장애 등 가정 사정으로 현재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양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생각하며 꾸준히 용돈을 모아 기부했다. 특히 오양은 지난해 6월에도 저금통에 모은 23만9230원을 위기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질병·장애·수감 등으로 천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발굴과 위탁부모 교육·상담, 위탁아동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오민서양이 자신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위기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제공=초록우산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 관계자는 “자신이 정성껏 모은 돈을 다른 아동을 위해 선행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민서 아동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전해져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이나 위탁부모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은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062-351-1206)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주)혁신·(주)연희건설, 장흥군 인재 육성에 힘 보태

인재육성장학금 총 1000만원 기부… “학생들 꿈·성장 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출신 부부가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탤다.

최연호 ㈜혁신 대표와 문희 ㈜연희건설 대표가 최근 장흥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최연호·문희 대표가 각각 운영하는 기업에서 500만원씩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고향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문희 대표는 장흥군 용산면 출신으로, 배우자인 최연호 대표와 함께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자 이번 장학금 기부에 뜻을 모았다.

(주)혁신과 (주)연희건설은 요트계류시설, 다기능 부잔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해양시설 전문업체다.

최연호·문희 대표는 “고향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최연호 ㈜혁신 대표와 문희 ㈜연희건설 대표가 최근 장흥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순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고향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소중한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제3회 부모와 함께 배우는 나라사랑 캠프’를 개최했다.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나라사랑 캠프 성료

청소년·학부모 20가정과 독립운동 역사 등 교육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제3회 부모와 함께 배우는 나라사랑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과 학부모 20가정 등 총 80명이 참여했으며, 조부모·

부모·자녀가 함께한 3대 가족과 애국지사 가족도 참여해 세대가 함께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숲 해설과 숲 속 보물찾기를 통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역사 퀴즈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나라사랑 정신을 살렸다.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등 6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